

# 中, 홍콩시위·무역갈등에 '대미 강경론' 부상

북대하 회의 강경파가 주도권  
중정부, 연일 강한 불만 표명  
중매체들 "홍콩에 개입 확실"

홍콩 시위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중국 정부에 반기를 드는 양상으로 변질하고 미·중 무역 갈등은 해결 기미 없이 커져만 가자 중국이 미국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강대국 대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세 전환은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 중국 중대 현안의 해결 방향과 노선을 논의하는 베이징(北經) 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국 지도부 내에서 대미 강경파가 정국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이달 초 베이징 회의에 참석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원로들과 만나 홍콩 문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 기간 홍콩 사태와 미·중 무역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자 중국 정부는 외교부나 관영 매체 등을 총동원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미국의 자제를 거듭 촉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 미국과 원만한 무역 전쟁 타결을 위해 합의를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강력한 경제 압박을 가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홍콩 사태 또한 범외인 인도법(송환법)을 추진했다가 홍콩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유보했으나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자 중국이 그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미·중 간 충돌의 요인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한 소식통은 "연이은 홍콩 및 미·중 무역 갈등 악재는 시진핑 주석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중국 지도부 내 강경파와 원로들에게 힘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향후 중국의 대미 입장이 강대국 대결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부터 기존 25%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 2천500억 달러 외에 추가로 3천억 달러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고, 중국은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방침을 밝히며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며 베이징 회의가 열린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며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형국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한 보복 조치 성격도 있지만,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으로 확산한 국면이다.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외세 개입 때문에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친 중국 성향 매체들을 통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가 홍콩 시위 주도자를 만난 사진을 공개하고 미국을 시위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시위대와 중국정부가 맞서는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로 대결하는 것으로 국면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93〉 술룰후

술룰후(述律后, 879-953)는 요나라 태조 야율아보기의 부인이다. 2대 태조 야율덕광의 모친으로 요나라 건국에 크게 공헌했다.

이름은 평이고 거란 이름은 월매타다. 조상은 회골인으로 열네살에 야율아보기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보기의 고종사촌 누이였다. 젊어서부터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임기응변이 뛰어난 남편은 군대를 출동시킬 때 그녀의 자문을 구했다.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2만명의 기병 호위부대인 속산군을 거느렸다. 일찍이 남편이 당항 지역으로 출정하면서 진지를 지키게 하였다. 황두, 취박의 두 부족이 연합해 노략질하자 기습해 대파하니 그 명성이 여러 부족사이에 떨쳤다. 또한 남편을 설득해 거란의 일급 부족장을 파멸되게

신을 상실한 유약한 인물로 생각했다. 자신의 질녀가 덕광의 아내가 되기에 더욱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족장들에게 야율배와 야율덕광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선택토록 하였다. 그녀의 뜻을 눈치챈 족장들이 덕광의 말고삐를 잡고 충성을 맹세했다. 야율배는 동단국왕에 봉해졌다.

그녀는 아보기가 길림성 부여성에서 죽자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족장이 장수들의 처를 불러 말하기를 "나는 지금 과부가 되었는데 너는 나를 본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그 지아비들을 모아놓고 울면서 물었다. "너희는 돌아가신 황제를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돌아가신 황제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과연 그를 생각한다면 지하에 가서 그를 알현하시오"라고 말하고 모두를 처형하였다. 대신들을

### 요나라 태조 부인...건국에 큰 공헌

초청해 술에 취하도록 한 다음 죽여 거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913년 남편의 후에서 귀순한 한인 관료 조사온도 순장을 강요받았다. 그는 "가까운 사이로 따지면 태후께서 제일 가까운데 왜 돌아가신 황제를 만나려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였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국가에 주인이 없어 당분간 황제를 따라갈 수 없다"며 대신 자신의 오른손을 찌어내었다. 이로써 자신의 순장을 대체했다.

아보기가 황제가 되었지만 통치체제나 관료기구가 영성하기 그지없었다. 연나라 황제 유수광이 한연휘를 거란에 보냈는데 그는 아보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기를 거부했다. 격노한 아보기가 들에서 말을 먹이도록 지시하였다. 술룰후는 의당 예의를 갖추어 그를 기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연휘가 거란에 끼친 공은 컸다. '요사'는 그가 "도성을 세우고 궁전을 건설하고 군사 관계를 바로 세우는 등 왕조의 초석을 닦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직위가 중서령에 이르렀다.

917년 아보기가 유주를 공격하려하자 성급한 처사라며 반대했다. 조금하게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면 중국측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자신이 낳은 세 아들 중 차남 야율덕광을 아꼈다. 장남 야율배를 중국 문화와 예술에 심취해 거란의 승무정

참주해 순장한 후 이에 의문을 품은 관료들도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유주 전투에서 귀순한 한인 관료 조사온도 순장을 강요받았다. 그는 "가까운 사이로 따지면 태후께서 제일 가까운데 왜 돌아가신 황제를 만나려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였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국가에 주인이 없어 당분간 황제를 따라갈 수 없다"며 대신 자신의 오른손을 찌어내었다. 이로써 자신의 순장을 대체했다.

947년 야율덕광이 후진 수도 개봉을 점령한 후 귀국길에 죽었다. 그녀는 일찍부터 거란족의 중원 공격에 회의적이었다. 덕광에게 "네가 한 평의 땅을 얻어도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덕광이 죽자 야율배의 장자인 야율안이 추대를 받아 황제에 즉위했다. 3대 세종이다. 파멸되기에 있던 술룰후는 자신의 셋째 아들 야율이호를 지지하고 야율완 무리를 반역자로 토벌토록 명하였다. 야율완은 조모인 술룰후와 시라무렌강 양쪽에서 대치했다. 양측은 황족인 야율옥질의 중재로 화해하였다. 그녀는 군대를 해산하고 수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이호가 황제되는 소망을 버리지 못해 정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세종은 그녀와 이호를 조주로 유배했다. 953년 75세로 세상을 떠나니 남편 아보기의 무덤인 조릉에 합장되었다.



제9호 태풍 레끼마가 강타해 물에 잠긴 중국 동남부 저장(浙江)성 타이저우의 한 도로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이재민들을 불도저에 태워 대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태풍 '레끼마' 강타 중국 인명피해 속출

사망·실종 60명 이재민 816만

제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 동부 지역에 상륙한 뒤 해안가를 따라 북상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레끼마는 전남 산둥(山東) 지역에 상륙한 뒤 해안가를 따라 북상하고 있다.

산둥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165만 5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농경지 17만ha가 물에 잠기고, 가옥 609채가 피해를 보는 등 60억여 위안(1조 2000억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났다.

레끼마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산둥지역 120여개 도시에는 200~400mm의 비가 쏟아졌고, 4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린 지역도 6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중국 전역에서 레끼마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각각 37명과 23명으로 집계됐다. 또 누적 이재민 수는 816만명을 넘어섰다.

레끼마는 현재 산둥반도를 거쳐 산둥성, 톈진(天津)직할시, 라오닝성 등 보하이(渤海)만으로 북상하고 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산둥 북부 해안과 톈진(天津), 라오닝(遼寧) 다롄(大連) 등 지역에 해일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레끼마는 향후 산둥반도를 관통해 보하이만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변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日기업 54%, 수출규제 평가 "몰라·말 못 해"...정부 눈치?

교도통신 주요 기업 112곳 설문

일본 정부가 정용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정책을 놓고 일본 주요 기업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도통신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된 후인 지난 7월 초순부터 하순에 걸쳐 일본의 주요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절반이 넘는 54%가 "모르겠다·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 간 대립

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래할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의 이 같은 완곡한 분석에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본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확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교도통신은 작년 이맘때 조사에선 이 응답 비율이 77%에 달했다며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올 10월의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경기 상황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불안이 부각됐

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경기 전망으로는 지금과 비교해 별 변동을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9%로 주류를 이뤘다. 완만하게 확장할 것이라는 견해는 33%, 완만하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 답변은 14%였다.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보호주의 고조에 따른 무역마찰과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는 조사 대상 일본 기업의 46%가 실적 악화를 우려했다. 반면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답한 기업도 31%나 됐다. 교도통신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간접적으로 받을 영향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학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향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 대학원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